

# 전교조, 규약 개정 거부... '법외노조'되나

### "해직교원 조합원 인정 위법" 고용부 시정명령 방침

### 합법화 14년만에 단체협약교섭권 등 박탈 기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원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조합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노동법상 노조 지위를 잃고 '법외(法外)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이 박탈된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한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

어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 등 '전교조 법외노조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노조의 자 주성을 침해하는 탄압"이라며 "시정 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교조는 먼저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또 법외노조가 가시화될 경우 임시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어 대응방안에 대한 조합원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전국대의원대

회는 전교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전교조는 이날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전교조는 특별결의문에서 "해고자 배제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 주성을 침해하고 노조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며, 조합원과 해고자를 분리해 노조 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교활한 술책"이라며 "전교조는 권력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시민·사회·교육단체 등과 굳건히 연대해 끝까지 저항하며 전교조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한 지 14년이 됐

는데 이제 와서 구실을 삼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조합의 운영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전체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투쟁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25일 집행부회의를 통해 고용부의 탄압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분회·지부 총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2일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다"는 현재 전교조 규약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여기서 고쳤다. "다음달 중 이 규약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전교조에 보내고, 전교조가 30일 동안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에도 두 차례 전교조에 '법 위반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다.

현재 해직교원으로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은 전남지역 1명을 비롯해 총 2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조직이 해체되는 양지만 단체협약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이 박탈되며,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는 사무실 임대료도 받지 못한다. 조합비를 조합원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걷는 편의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교조 출신 평교사

### 교육장 깜짝 발탁

### 전남교육청 정기 인사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지낸 평교사가 강진교육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장과 장학관·교장·교감 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3229명에 대한 3월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명단 18면)

이번 인사에서 교육장 9명과 장학관·연구관 6명 등 교육전문직 81명이 전보·전직 또는 신규 임용됐다. 또 56명은 새로 교장으로 승진·전직했고, 공모 교장은 15명, 중임 교장은 37명, 교장 전보는 77명에 달했다. 교감 111명·교사 2851명도 자리를 옮겼다.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강진교육장에 오른 여수 여성중심심검(60·과학) 교사다. 심 교사는 지난 2001년부터 2년 간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지냈고, 2008년 9월부터 4년동안 강진초등학교에서 내부공모형 교장으로 근무했다.

순천교육청에는 신경수 순천공고 교장이, 화순교육청에 양윤자 나주상고 교장이, 무안교육청에 차과식 무안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임명됐다. 담양교육청에는 박인식 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이, 구례교육청에는 정봉호 여수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보성교육청에는 윤남순 분청 정책기획관이, 완도교육청에는 이홍상 이양초 교장이 발탁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소원 비는 '풍등 날리기'

지난 23일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린 '제31회 광주 남구 칠석 고싸움 놀이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하늘 높이 풍등(風燈)을 날리며 소원을 빌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노인 상대 '악덕상술' 판친다

### 지난해 전남지역 피해 2500건... 피해액만도 9억여원

전남지역 노인들이 지난해 악덕 상술 등으로 피해를 본 건수가 2500건에 추정 피해액만도 9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소비자 피해건수는 2577건에 피해액만 9억1500만원에 달했다. 피해건수는 전년 1904건에서 672건(26.1%)이 증가할 수 있다.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피해 처리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접수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은 일방적인 계약취소가 114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다한 위약금 520건(20.2%), A/S 불만 387건(15.0%), 부당한 채권추심 289건(11.2%), 품질 하자 160건

(6.2%) 등이었다.

노인을 속이는 이른바 '악덕이나 기만 상술' 상위 3대 유형으로 과장이나 허위광고가 211건(39.4%)을 차지했으며 공짜나 당점 상술 155건(29%), 가격할인 128건(23.9%) 순이었다.

상위 3대 피해품목(535건) 가운데 식품과 매트 등 건강용품이 257건의

로 가장 많았으며 우후죽순 늘어난 상조서비스가 194건, 이동전화 서비스 기만 상술이 84건이었다. 이밖에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유도관광을 빙자한 물품판매 등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노인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교육과 함께 동네 시군을 순회하는 이동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또 노인들을 모아 기만상술을 퍼는 무료체험관이나 홍보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집중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7분 해질 18시 24분 달돋이 17시 59분 달질 06시 18분

**봄 기온**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 많음	-2/0°C
목포	흐림	-1/10°C
여수	구름 많음	1/10°C
나주	구름 많음	-4/10°C
완도	흐림	0/11°C
구례	흐림	-3/10°C
강진	흐림	-2/11°C
해남	흐림	-2/12°C
장흥	흐림	-2/12°C
순천	흐림	-3/10°C
영광	구름 많음	-4/10°C
진도	흐림	-1/9°C
전주	구름 많음	-2/10°C
군산	구름 많음	-3/10°C
남원	구름 많음	-3/8°C
옥산도	흐림	3/9°C

체감온도: 관심, 매우높음, 높음  
미물: 목포, 여수  
눈: 없음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화)	27(수)	28(목)	3/1(금)	2(토)	3(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4/9	1/10	0/12	4/7	-1/16	-2/7

## 꽃샘추위 심술...봄소식도 늦다

꽃샘추위 심술에 올 봄은 더디게 찾아 올 전망이다. 광주기상청은 24일 "올 봄 전반까지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3월은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한 달이 예상된다"며 "특히 3월 상순까지는 평년(4~6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중순 이후부터 점차 평년기온을 되찾

다"고 내다봤다. 광주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전망' 자료에 따르면 3월 상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세력을 유지해 출꽃은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늦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기온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역사로 읽는 오월길 탐방'

### 내일 '기대승 월봉서원' 등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은 26일 오전 9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장소마케팅연구소와 함께 '역사로 읽는 오월길 탐방-5·18 뿌리길을 가다'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오월길 안내 해설사인 오월지기와 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생, 조산대 사학과 대학생 등 40명의 참가자와 함께하며 역사학자 이종범 조산대 교수와 전용호 소설가의 안내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주제 '5·18 뿌리 길을 가

다'는 학문과 교육을 통해 도덕문명의 추구, 총질과 절의의 정신, 정의와 공화를 추구했던 인물과 공간을 찾아 광주 정체성의 연원을 찾아간다. 또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역사 속의 과거와 5·18 그리고 현재를 이어가며 미래의 청사진도 그린다. 탐방지는 임형수(조선 중기 문신·1504년~1547년)와 등림사, 양산숙(조선 중기 의병장·1561년~1593년)과 양씨삼강문, 기대승과 월봉서원, 윤상원과 들불야학, 지혜학교 등이다. 기념재단은 오월길을 통한 오월정신의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답사 테마를 개발·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360-053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봄 여행 특가 상품**

저렴하게 떠나는 버스정기투어

- 1 제주 新관광 일뜰특가 3일 ₩249,000~ (관광열차, 코끼리랜드쇼 공연)
- 2 제주 최고일정 육해공투어 3일 ₩319,000~ (집수합+우도유람선)
- 3 제주 고품격일정 웰빙투어 3일 ₩339,000~ (더마파크공연+매직아일랜드+특식2회)

명처리 관광명소탐방 3박4일 ₩149,000~ [2/25, 3/4, 3/11]

등산 한라산등반 1박2일 ₩149,000~ [3/3]

에어카텔 자유여행(제주2박3일) 주중출발!!

제주관광지하인쿠폰, 주말항공, 숙박, 렌트카 [www.mongjeju.com](http://www.mongjeju.com)

팬션 2인실 319,000~ 4인실 249,000~

관광호텔 2인실 289,000~ 4인실 239,000~

칼호텔 2인실 369,000~ 4인실 309,000~

리조트급 2인실 339,000~ 4인실 269,000~

●포함사항: 주중왕복항공, 숙소(2박), 식사(조식), 유가할영료 ●불포함사항: 자차보험, 주유비

제주 골프 특가 팩 (왕복항공1박2일)

출발일 3/3, 3/10 ₩299,000~

●포함사항: 왕복항공, 숙소(렌선4인실), 캐슬박스+렌리산(18홀2회), 왕복수송 ●불포함사항: 유가할영(52,000), 기사가이드팀, 식사

www.itourclub.co.kr 김경호 팀장 062) 382-8201